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백혜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정다정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어머니를 대상으로-

백혜선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정다정

# 인 준 서

정다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_\_\_\_\_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변화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인 내용들을 질적으로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 대상자들은 D시에 있는 G음악치료센터에서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의 어머니로, 6명이 의도적 표집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을 상대로 자녀의 음악치료 경험에 대한 반구조적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양적 연구과정으로 밝히기 어려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다가가기 위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59개의 구성된 의미와 20개의 주제, 8개의 주제모음, 그리고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범주들은 ‘기본인식’, ‘긍정적 요인’, ‘인식 전환’, ‘관계변화’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마로서 자녀 양육태도가 변화하여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둘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악기 연주를 하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통해 변화된 자녀의 모습은 부모에게 자녀의 삶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켰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새로운 삶을 희망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음악치료가 장애아동과 그 부모에게 가져온 관계변화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주 양육대상자인 어머니의 시점에서 보다 깊게 장애아동의 부모를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음악치료 분야에서 다뤄질 장애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변화를 위한 질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3
<b>II. 이론적 배경</b> .....	4
1.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이해 .....	4
1) 장애아동 부모의 특성 .....	4
2) 장애아동 부모의 요구 .....	5
3)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	6
2.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 .....	7
3. 음악치료 .....	8
1) 음악치료의 정의 .....	8
2)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	10
3) 음악과 모아 상호작용 .....	11
<b>III. 연구방법</b> .....	14
1. 현상학적 연구 .....	14
2. 연구절차 .....	15
1) 연구 대상자 선정 .....	15
2) 자료수집 .....	16
3) 자료 분석 .....	17
4) 연구의 신뢰성 .....	18

5) 윤리적 고려 .....	18
<b>IV. 연구결과</b> .....	<b>19</b>
1. 연구결과 .....	19
1) ‘기본 인식’ 범주 .....	23
2) ‘긍정적 요인’ 범주 .....	28
3) ‘인식전환’ 범주 .....	39
4) ‘관계변화’ 범주 .....	45
2. 본질적 구조 .....	50
<b>V. 결론 및 제언</b> .....	<b>52</b>
1. 결론 및 논의 .....	52
2. 제언 .....	55
<b>참 고 문 헌</b> .....	<b>56</b>
<b>ABSTRACT</b> .....	<b>62</b>
<b>부        록</b> .....	<b>64</b>

##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	15
<표 2> 반구조화 형식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 .....	16
<표 3>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	19
<표 4> ‘기본 인식’의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	27
<표 5> ‘긍정적 요인’의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	37
<표 6> ‘인식전환’의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	44
<표 7> ‘관계변화’의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	4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가깝고도 친밀한 존재다. 특히 아동의 경우 성장기의 대부분을 부모 곁에서 보내게 되는데 신체적·정신적인 성장과 발달, 지식의 습득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기초능력이 가족 안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서 기초적이고도 필수적인 요소이다(최신행, 주세진, 2012). 더욱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아동 보다 부모의 도움을 더욱 필요로 하며 자녀와 부모 간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는 자녀의 자각, 자기통제력에 있어 향상을 보인다(박혜영, 2014).

특수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특수교육 대상자는 86,633명으로 2012년 보다 1,621명 증가하였으며, 특수학급의 수 역시 전년 대비 416개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 서비스의 강화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교육부, 2013). 이렇듯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은 나날이 수요가 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있다(류현정, 이승희, 2007). 그 중에서도 음악은 감정의 표현과 미적인 즐거움, 의사소통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가 치료의 일차적인 도구로 쓰이면서 자연적인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Bruscia, 1998; Radocy, & Boyle, 1997). 이를 바탕으로 한 음악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음악치료의 대상영역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음악치료를 전문적인 치료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있다(박소연, 황은영, 이은선, 2010).

최근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음악치료는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인 공격성, 반항, 과잉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래를 통해 장애아동의 표현 언어습득과 집중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인지영역에서의 발달을 촉진한다(김지연, 2003; 박소연, 2004; 이수진, 2002; 이승현, 2000; 장혜원, 2007). 또한 비장애 아동에게도 음악치료경험은 창의성을 향상시키며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형성, 자주성 발달, 책임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박혜영, 박부진, 2013; 황은영, 김영신,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치료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음악치료가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증진, 의사소통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음악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적절한 매개체라는 것을 입증한다(백경실, 2012; 정예은, 2007). 또한 음악치료를 경험한 이후 변화된 자녀의 모습이 부모에게 치료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음악치료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하승희,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로 인해 음악치료가 장애아동과 그 부모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 수 있으나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관점에서 자녀의 음악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개개인의 생생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경험의 깊이와 관계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를 음악치료를 경험한 아동으로 하지 않고 자녀의 부모로 선정한 것은 부모의 관점에서 음악치료의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실질적으로 부모의 필요에 따라 치료의 종류, 치료 기간, 치료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부모를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장애를 가진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이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하며, 경험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음악치료전문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에 대한 인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
- 2)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나타난 상호작용의 내용은 무엇인가 ?
- 3)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나타난 관계변화는 무엇인가 ?

## II. 이론적 배경

### 1.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이해

#### 1) 장애아동 부모의 특성

장애아동의 인구 증가로 장애아동뿐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되고 있다(정대영, 최정아, 2010). 자녀의 출생은 한 가정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 오는 사건이며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되는 반면, 자녀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그 가정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강윤영, 한경근, 2007). 특히 부모는 장애를 가진 자녀의 양육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심리적 갈등문제를 겪기도 한다. 이는 일반 아동의 부모가 직면하는 것과는 다른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부담감과 같은 특정문제들로 나타난다. 또한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의 행동과 발달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상호작용을 형성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의 특정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부족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며, 자녀의 양육과정에서도 일반 아동의 어머니들에 비하여 더욱 많은 양육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김기령, 2004). 또한 주 양육자는 자녀의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과 생활양식의 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 건강의 악화, 불안감과 같이 여러 문제에 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기도 한다(김인옥, 이원령, 2011). 이 외에도 장애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 보다 심리적 좌절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어머니가 장애아동을 양

육 시, 아버지에 비해 일상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러한 부모의 부정적 감정과 불안은 아동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조용태, 2001).

결과적으로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정서적인 면에서부터 양육할 때 필요한 정보획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박지연, 2004).

## 2) 장애아동 부모의 요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은 장애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접촉이 많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족의 요구도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족의 요구 또한 달라질 수 있는데, 가족 중에서도 특히 부모는 아동의 요구와 건강을 경청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Bailey, Raspa, & Fox, 2012).

Turnbull, & Turnbull(2001)의 가족체계 관점에서 보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단계로 가족생애주기가 나타난다. 이러한 생애주기 전이는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가족생애주기별로 가족이 선호하는 것과 강점, 요구가 다를 수 있다. 먼저, 유아기에는 장애 관련 진단평가와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학령기에 이르러서는 통합교육과 분리교육의 선택과 같은 학교 관련 요구를, 청소년기에는 성 관련 문제점,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가족의 욕구가 높았으며 성인기에는 주거, 직업, 결혼에 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천국, 김진희, 2012, 재인용).

이 외에도 부모들의 전반적인 요구에 대한 경향으로 자녀에 관한 정보, 지역사회 서비스, 재정적인 문제, 가족 및 사회적 지원, 타인에게 자녀에 대해 설명하기, 양육문제, 전문가 지원의 순으로 자녀에 관해 가장 높은 요구

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 가정에서 장애아동의 발생은 가족들에게 심리적 불안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문제 이외에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노력과 시간, 에너지 투입 등으로 사회 문화적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정부나 사회를 향해 다양한 요구를 갖게 되며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정민정, 서주은, 2010; 한현정, 김혜영, 2003).

### 3)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경험하게 되는 양육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이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합한 특수교육 기관을 찾아내고 통원의 곤란을 감수하는 등 교육적인 부담을 경험, 지속적인 돌봄의 필요로 인해 직장생활의 유지가 어렵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도 노출되어 있다(박진성, 신현정, 박애순, 2008; 이상명, 박재국, 김혜리, 서보순, 2010). 따라서 장애아동의 부모는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높은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강선경, 2002). 또한 이들은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위축, 수치심, 고립감, 죄책감 등을 경험하고 있다(안정선, 오승진, 2012). 이와 같이 양육스트레스는 장애아동 부모의 정서적 문제를 유발시켜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인옥, 이원령, 2011).

특히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하여 더 높은 양육 참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어머니는 자녀의 삶에 효과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는 존재로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리적으로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교육과 자활에 필요한 노력과 보조를 한다(김기은, 이양희, 2007). 하지만 자녀의 장애를 완전히 수용할 때 까지 겪는 심리적인 갈등과 혼란,

특정 단계에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자녀를 대할 때 우울함과 같은 부적응적인 양상은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이 흔히 경험하는 일이다(이한우, 2002).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심리적 문제뿐 아니라 장애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윤선아, 나수현, 2005).

## 2.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

부모는 아동이 출생 이후 처음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며 최초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도하며 관계를 맺는 대상이다.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들을 발달시킨다. 부모가 아동과 어떤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소통에 관한 문제는 아동의 전반적인 기능 수준과 관련이 있다(김정미, 2004; 선우현, 2007).

애정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자녀와 부모 사이는 애정으로 연결되며 민주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부모나 아동 모두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고 아동의 정서발달,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회성을 갖도록 한다(김애경, 2001; 정남주, 2010). 또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 참여도가 더욱 높은 편이며, 자녀의 일상생활과 교육에 관심을 보일수록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다는 상호관계를 나타냈다(이상명 외, 2010).

Kauffman, & Landrum(2008; 김진호 외, 2011, 재인용)은 효과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부모들이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고 공감적이어서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는 아

동이 정서적인 안정과 관계의 안정성을 발전시키는 기반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영향이 아닌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부모의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비일관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아동의 정서적 혹은 행동적인 문제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낮추고 우울, 스트레스를 경험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부모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심리적인 어려움들은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이는 다시 자녀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상호 순환적 상호작용에 놓여있다(박혜영, 2014).

### 3. 음악치료

#### 1) 음악치료의 정의

음악치료 치료사가 내담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음악적 경험과 관계들을 통하여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체계적인 치료과정이다(Bruscia, 1998). 일반적인 정신요법과 달리 음악활동을 통한 치료를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가창, 합창, 기악연주와 작곡, 음악감상 등 내담자의 행동특성 및 성격, 적응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정현주(2005)는 음악치료에서 치료의 도구로 사용되는 음악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음악의 다양한 기능은 치료적 상황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이유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Merriam(1964)이 주장한 음악의 기능은 감정표현과 의사소통, 상징적인 표현, 미적 즐거움, 오락, 신체적 반응, 사회적 규범, 사회기관과 종교의식의 확인,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 기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명과 문화를 뛰어넘어 전세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음악의 기능은 내담자로 하

여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도울 뿐 아니라 내담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현주, 2005, 재인용).

이와 같이 음악치료는 음악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이라는 순수 예술을 치료의 목적으로 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유의 학문적·임상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 순수 음악에서의 음악은 하나의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의미를 부여하지만, 음악치료에서는 음악적 결과물 보다는 음악을 만들어 가고 경험하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음악치료에서 음악적 과정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의 기능적 변화를 포함한 목표들을 이루고 이러한 변화들은 음악 외적인 환경에 전이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음악치료는 선천적으로 음악에 반응을 하며 자연스러운 음악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다. 선천적으로 음악에 반응하는, 내재되어진 본능을 가진 아동을 ‘음악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Nordoff, & Robbins(1971)가 제시한 창조적 즉흥연주 모델의 기본 개념으로 모든 아동은 음악적 표현과 반응을 어떤 형식으로든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인간에 내재된 음악성을 ‘기초적 음악(elemental music)’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 Orff(1980)는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울동, 동작, 소리, 노래 등을 이용하여 즉흥적으로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내재된 능력과 음악에 대한 자율적인 표현방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악치료의 목적 중 한 가지는 특정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재된 ‘음악아’를 일깨워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음악적 경험 내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음악치료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음악적 환경에서 보인 행동이 음악 외적 환경에 전이된다는 것이다. 정신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음악치료 안에서 표현되어진 음악은 그것을 표출한 내담자의 상징적인 투사라고 할

수 있다. 음악치료에서는 이러한 표출 되어진 음악적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처 기술들을 강화시키고 내담자의 성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음악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주장한 Gaston(1968)의 말처럼 음악을 통해 감정표현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음악이 인간의 본능적 부분과도 관계함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음악치료는 치료사 마다 주장하는 철학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인간의 음악적 행동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심리·정서적인 이론과 치료적 원리에 근거하여 발전되어졌다(정현주, 2005, 재인용).

## 2)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더불어 사회 적응력 또한 배워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음악적 경험이나 치료적 활동은 장애아동이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다(윤정하, 2011). 과거의 음악치료는 주로 정신질환자에게 시행되었으나 이것은 점차 확대되어 오늘날 예방 차원의 건강 분야와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통합교육 분야에서도 음악치료가 적용되고 있다(김정란, 2006).

음악치료는 본질적으로 상대방과의 교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음악은 자기 표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언어와 언어 채널을 연결시키는 교량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음악치료는 의사소통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인 공감을 음악적 과정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홍화진, 정대영, 2012; Bruscia, 1998). 또한 음악을 매개체로 사용한 활동을 통해 장애아동들이 자신과 타인, 나아가 인간 관계 속의 역동적인 경험을 체험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음악치

료 속에서 갖게 되는 의미 있는 경험들이 장애아동들의 일생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건강한 경험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진소영, 2009).

음악은 아동들의 욕구에 대한 상징적 의사전달 통로로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음악은 아동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정서를 반영하고 표출할 수 있는 도구이며 음악 활동은 아동의 정서뿐 아니라 언어와 인지, 사회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음악이 아동의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감정전달의 매체가 됨으로 이를 통하여 언어적 표현을 도와주며 잠재적인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김수지(2012)는 치료와 교육적 기능을 모두 포함한 음악의 활용이 아동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 3) 음악과 모아 상호작용

음악은 어머니와 아동 사이를 연결해주는 의사소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어머니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감정들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Alvin, 1975). Nolan(1989)은 음악치료에서 악기의 사용이 어머니와 아동 모두에게 흥미로운 대상이 되므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악기 연주는 어머니와 아동 관계를 상징적이고 비언어적인 수준으로 나타내 줌으로써 폐쇄적 형태의 언어나 대화에 일어날 수 있는 저항을 막아준다. 또한 영아기 시절 동안 어머니와 주관적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기 연주는 어머니와 아동이 애정적으로 조율되고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재경험 할 수 있도록 해준다(윤혜신, 2000).

Austin(2008/2012)은 말이나 노래를 통한 어머니와 아동 사이의 음성적 상

호 교류와 연결성은 그 둘 사이에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준다고 하였다. 안정된 기저인 어머니와 함께 음악적 경험을 하는 것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동시에 어머니에게는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와 경직된 심리를 정서적으로 이완시키고 민감성을 향상시켜주어 상호간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치료에서의 악기의 사용은 어머니와 아동을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허용해주는 매체로 사용된다. 즉, 같은 공간에서 소리는 융합되면서도 어머니와 아동 각 각은 서로에게 안전한 대상이 된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악기 연주는 가족 간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무의식적 갈등을 소리를 통해 표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려면 가족 간에 서로의 악기 소리를 이해하고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악기로 소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통해 가족이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음악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 안에 흐르는 역기능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성취감, 만족감, 자녀와 부모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김효선, 선우현, 2014). 악기 연주는 어머니와 아동의 역할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누가 어떤 악기를 선택하였고 그 악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연주하는지가 어머니와 아동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 악기가 어머니와 아동의 심리적 경험을 대상화 시켜주기 때문이다(Thaut, 1989).

악기 연주 외에도 노래는 음악이라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동에게 보호와 안정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McDonnell(1984)의 주장처럼, 친근한 노래는 연상을 일으킨다. 또한 노래는 잠재되어 있는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저항, 부정적 연상, 부정과 같은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저

항의 표현은 가치 있는 정보이며 어머니와 아동의 건강하지 못한 불평등한 관계를 드러낸다(정현주, 2005, 재인용).

결과적으로 음악치료에서 노래는 어머니와 아동간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자극시키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아동의 관계에 있어 공격성과 불안감을 다룰 수 있다. 또한 정서를 자극하거나 감정을 이끌어내는 음악의 힘은 문제 행동에 대해 논의하거나 긍정적인 제안을 위한 동기를 제공해준다.

### Ⅲ. 연구방법

####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형태로, 경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밝혀내는 귀납적 연구방법이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먼저 Creswell(2007/2010)은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이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Van Manen(1997; 정현주 외, 2004, 재인용)은 각 현상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해석적 연구라 하였으며, Colaizzi(1978)는 경험을 주어진 그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현상학이라 하였다. 현상학은 진실을 탐구하는 연구가 아니라 경험의 의미와 상관성을 조사하는 연구로, 인간 경험의 여러 측면들을 밝혀낼 수 있다. 이렇듯 현상학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현상학은 양으로 나타내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 않고, 복잡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문지영, 2010).

지금까지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양적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변화에 어떠한 경험을 불러 일으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에 대해 가장 실제적인 경험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

다.

## 2. 연구절차

### 1) 연구 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에 의한 질적 연구로 연구 대상자는 음악치료전문기관에서 음악치료를 장기간 경험한 자녀를 둔 부모이다. 연구의 목적인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대상을 찾기 위하여 음악치료 경험 기간이 1년 이상 된 자녀의 부모들로 의도적 표집을 하였다. 부모 중 면담에 참여한 6명의 어머니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복합장애의 진단명을 가진 자녀가 있으며 자녀의 연령 범위는 최소 8세에서 최대 12세이다. 이들 연구 대상자 6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 특성

연구 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연령 (대)	자녀의 음악치료 경험기간	자녀의 진단명	자녀의 연령 (세)
A	모	40	5년	다운증후군	12
B	모	40	4년	윌리엄스	10
C	모	40	3년	윌리엄스	8
D	모	40	4년	뇌성마비	8
E	모	40	1년	지적장애	10
F	모	40	2년	지적장애	10

## 2) 자료수집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의 부모들에게 사전에 면담을 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전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 시간은 연구 대상자마다 1시간 내외로 소요되었다. 면담은 음악치료전문기관에서 시행되었으며, 반구조화 된 방식과 개방적 질문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면담을 유도하였다. 면담자료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윤건수, 2013), 모든 면담은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지고 면담과 동시에 녹음기로 녹음되었다. 또한 녹음된 자료 전체를 필사하여 근거자료로 삼고 면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반복 청취하여 연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 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재면담을 통해 해당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표 2> 반구조화 형식 면담에서 사용된 질문

개념	세부 개념
음악치료 인식	음악치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나요?
	음악치료를 경험한 자녀나 다른 아동의 모습을 보고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다른 치료와 달리 음악치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부모들에게도 음악치료를 소개시켜 준다면 특별히 어떤 점에 대해 말하고 싶나요?

개념	세부 개념
자녀의 변화된 모습	음악치료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자녀의 모습이 있었나요?
	음악치료를 경험하기 전과 후의 자녀의 모습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음악치료경험 후, 세션 밖에서 자녀의 모습에 변화가 있었나요? (정서적 · 행동적 · 언어적)
부모의 인식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이 자신(연구 대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일으켰나요?
	자녀의 음악치료경험 후, 일상생활에서 자신(연구 대상자)과 자녀 사이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 과정의 내용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반복하여 청취하고 필사하여 의미 있는 진술 내용을 분류하였다. 2단계, 의미 있는 진술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배제한 후, 탐구하려는 현상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3단계, 도출된 의미 있는 진술 내용이 연구 대상자가 기술한 내용과 맥락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원자료를 읽으며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중복 되는 표현을 배제시키고, 구성된 의미(formulating meaning)를 파악하였다. 4단계, 구성된 의미가 유사한 진술끼리 분류하여 주제와 주제모음 그리고 범주로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류된 주제, 주제모음, 범주에 어색함과 모순은 없는지 스스로 질문하였으며, 현상학적 연구 경험이 있는 음악치료사와 의견을 나누었다. 만약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원자료로 다시 돌아가 지속적인 분석을 시도하였

다. 5단계, 분류된 주제모음과 범주들을 총체적으로 통합하여 본질적 의미 구조를 파악하였다. 6단계,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최종적인 현상학적 진술을 기술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도출되어진 분석 결과를 상호 점검하여 사실적 가치에 가깝게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4) 연구의 신뢰성

본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연구자는 분석과정에서 녹음된 내용을 여러 번 듣고 필사하여 범주화 분석과 핵심내용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면담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답변에 내재된 의미 전달에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재면담을 시행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위해 음악치료사 3명의 관점을 참고하여 삼각 관점(triangulation)으로 각 현상들의 의미구조와 범주화 작업을 여러 번 검토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성격,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 또는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면담을 통하여 나온 자료의 필사본은 전부 기호화 하여 연구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일정 기간 후에 폐기할 것을 명시한 연구 동의서에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 6명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나온 필사본을 상세하게 읽으며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하기를 통해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에 관련된 사건과 현상, 반응과 결과 등을 중심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되거나 독특한 진술에 이름을 붙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진술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인용하면서 진의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의미 있는 진술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59개의 ‘구성된 의미’와 20개의 ‘주제’, 8개의 ‘주제모음’, 그리고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여기에서 ‘범주’는 ‘구성된 의미’와 ‘주제’, ‘주제모음’의 의미를 종합함으로써 나온 핵심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범주’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분석된 자료를 총체적으로 서술하였고, 현상의 공통된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였다.

<표 3>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음악치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음			
-음악치료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음			
-음악을 치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짐	치료의 인식수준이 낮음	음악치료에 대한 기본 인식	기본 인식
-음악치료는 타 치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마지막 순서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시작하게 됨</li> <li>-다니던 기관과 연계되어 치료를 시작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을 통해 음악치료를 접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 듣는 노래를 쉽게 따라 부르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됨</li> <li>-자녀와 대화 시 노래를 부르듯 말을 하면 반응이 좋음</li> <li>-자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을 선호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치료를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인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치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치료를 시작함</li> <li>-자녀가 음악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서지원의 차원에서 치료를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활동을 통해 자녀의 생각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고 느낌</li> <li>-자녀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음악이 매개체가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의 도구로서 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 안에서는 오답이 없고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생각하게 됨</li> <li>-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음악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음</li> <li>-음악이 자녀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느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감과 수용으로서 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화를 촉진하는 음악의 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긍정적 요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줌</li> <li>-음악이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일반 아동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작용의 장을 만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래를 부름으로서 자녀의 쾌활량이 향상되었음을 깨달음</li> <li>-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손가락의 개별적 움직임이 향상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 발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악이 자녀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래가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됨</li> <li>-음악치료 시간에 배운 노래의 음을 기억하여 노래하는 자녀의 모습이 신기함</li> <li>-작사와 작곡을 하는 자녀의 모습이 놀라움</li> </ul>	인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래를 부르면서 의사소통 영역이 눈에 띄게 향상 되는 것을 느낌</li> <li>-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게 됨</li> <li>-발음 교정에 큰 효과를 보게 됨</li> </ul>	의사소통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대 위에서 다른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자녀의 모습이 믿겨지지 않음</li> <li>-자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줄 알게 됨</li> <li>-음악치료에서 다뤄본 악기를 일상생활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쉽게 연주할 수 있게 됨</li> </ul>	사회성 향상	음악이 자녀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느낌</li> <li>-자녀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밝아졌음을 발견</li> <li>-자녀에게서 충동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낌</li> </ul>	정서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실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됨</li> <li>-자녀가 다른 치료보다 음악치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음</li> </ul>	자녀가 치료에 임하는 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변화된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음악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li> <li>-음악은 자녀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게 됨</li> <li>-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음악이 가진 치유적인 효과를 느낌</li> </ul>	음악의 치료적 효과를 자각	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	인식 전환

<p>-자녀에게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게 됨</p> <p>-음악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한다는 것을 느낌</p> <p>-음악이 자녀의 감정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됨</p>		
<p>-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느낌</p> <p>-타 치료와 병행했을 때 치료적 효과를 빠르게 가져온다고 느낌</p> <p>-치료의 효과를 느끼고 다른 부모들에게 음악치료를 권유하게 됨</p> <p>-일반 음악활동과 다른 음악치료만이 가진 장점을 느낌</p> <p>-환경적인 요인이 불편하더라도 음악치료를 포기 할 수 없음</p> <p>-음악은 자녀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됨</p>	<p>음악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형성</p>	<p>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p> <p>인식 전환</p>
<p>-자녀로 인해 노래 부르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것을 즐기게 됨</p> <p>-자녀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p> <p>-타 치료에 상관없이 자녀가 원하는 것(음악치료)을 해주고 싶어짐</p> <p>-같은 치료 목적을 가졌을 때 타 치료보다 음악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자 함</p>	<p>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깨달음</p> <p>음악치료의 중요성을 느낌</p>	<p>음악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바뀜</p>
<p>-자녀의 의견을 수용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됨</p> <p>-자녀가 좋아하는 노래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됨</p> <p>-자녀와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 자신도 노력하게 됨</p>	<p>엄마로서 자녀 양육태도 변화</p>	<p>가족관계의 변화</p> <p>관계 변화</p>

-자녀가 먼저 엄마에게 같이 음악활동을 해볼 것을 제안함			
-자녀가 표현언어를 사용하여 가족에게 대화를 시도함	음악을 통해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남	가족 간의 상호작용 형성		
-집 안에서 노래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즐거워 함		가족관계의 변화	관계 변화
<hr/>			
-음악에 반응이 좋은 자녀의 모습을 보고 꿈(장래희망)을 갖게 됨	음악을 통해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함	자녀의 새로운 삶을 희망		

1) '기본 인식' 범주

(1) 음악치료에 대한 기본 인식

연구 대상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낮은 편으로, 음악치료라는 이름은 들어봤으나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또한 치료에 대해 특별한 기대를 갖지 않았으며 음악이 과연 치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의아해하였다. 다른 치료와 비교하였을 때 치료의 선택 역시 가장 마지막 순서로,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음악치료 인식 수준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주제1: 치료의 인식수준이 낮음 >

-음악치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음

원래는 음악치료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복지관에서 음악치료를 하니깐.. 그래서 그 때 음악치료를 했죠. (연구 대상자 A)

음악치료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아, 생각이 없었다기 보다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인지, 언어 이런 것도 그 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음악치료가 있는지도 몰랐었죠. (연구 대상자 C)

#### -음악치료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음

우리 애들이 워낙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해주면 좋아지겠지.... 그냥 막연한 거죠. (연구 대상자 A)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한 달 두 달 한다고 해서 크게 두드러지게 좋아지는 것은 기대를 하지 않았죠. 모든 게 다 느리니깐. 음악치료를 한다고 해서 금방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죠. (연구 대상자 B)

음악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때는 아이가 걸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애였으니깐 사실은 관심이 없었죠. (연구 대상자 F)

#### -음악을 치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짐

음악치료라고 하면은.. 제가 듣기엔 심리치료의 일종 그런 쪽으로 TV에서 접해서..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애들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애들인데 음악치료가 필요할까? 라고요. (연구 대상자 D)

#### -음악치료는 타 치료와 비교 했을 때 가장 마지막 순서였음

엄마들은 금방 뭔가 보여 지는 것이 있으면 좋으니깐.. 치료실을 다니는 것에도 순서가 있어요. 보통 언어, 인지.... 제일 미루는 게 실은 음악이에요. (연구 대상자B)

## (2)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연구 대상자들은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다른 부모의 이야기를 듣거나 기존에 다니고 있던 기관에서 추천을 받는 등 다른 사람을 통해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자녀가 처음 듣는 노래를 쉽게 따라 부르거나 노래에만 유독 큰 반응을 보이는 점을 신기하게 생각하여 치료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치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또는 타 치료와 달리 음악 안에서만큼은 자유를 주고자 치료실을 찾는 부모도 있었다.

### < 주제2: 타인을 통해 음악치료를 접함 >

-다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시작하게 됨

여기를 알게 된 게, 다른 치료실에서 만나게 된 보호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음악치료를 개인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깐 바로 여기 옆이더라고요. (연구 대상자 A)

-다니던 기관과 연계되어 치료를 시작하게 됨

기존에 다니고 있던 보건소에 공고가 붙어있던 것을 계기로 해서 음악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했죠. (연구 대상자 B)

< 주제3: 음악을 선호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치료를 선택 >

-처음 듣는 노래를 쉽게 따라 부르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됨

소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예민해요. 작은 소리도 잘 듣고.. 소리로 듣는 것에 대한 기억은 잘 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유행하는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더라고요. 기억을 해요. 차길 지나갈 때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래도 그 소리를 듣더라고요. 저는 못 듣는데. (연구 대상자 B)

-자녀와 대화 시 노래를 부르듯 말을 하면 반응이 좋음

말을 할 때 음을 넣어서 말을 해주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때부터 모든 말에 음을 넣어서 말을 해주었어요. (연구 대상자 F)

-자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함

아이가 처음에 말이 조금 부족했어요. 다른 것도 다 늦었지만 말도 많이 늦었거든요. 그런데 노래 같은 걸 좋아하고 TV영상을 보여주면 곧 잘 따라하진 못 하더라도 노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구 대상자 C)

< 주제4: 정서지원의 차원에서 치료를 선택 >

-다른 치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치료를 시작함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즐기라고 넣어줬어요. 치료 목적보다는. 다른 치료실을 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틀리면 압박감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유독 틀리는 것에 대해 예민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때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음악치료를 시작했어요. (연구 대상자 E)

아이는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재활적인 치료만 하니까, 그 나이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조금씩 보여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구 대상자 D)

-자녀가 음악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됨

아, 일단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 마음대로 어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만큼은 자유롭게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게... 그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E)

<표 4> ‘기본 인식’ 의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음악치료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음 -음악치료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음 -음악을 치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짐 -음악치료는 타 치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마지막 순서였음	치료의 인식수준이 낮음	음악치료에 대한 기본 인식	기본 인식
-다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시작하게 됨 -다니던 기관과 연계되어 치료를 시작하게 됨	타인을 통해 음악치료를 접함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처음 듣는 노래를 쉽게 따라 부르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됨	음악을 선호하는		
-자녀와 대화 시 노래를 부르듯 말을 하면 반응이 좋음	자녀의 모습을 보고 치료를		
-자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함	선택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	기본 인식
-다른 치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치료를 시작함	정서지원의 차원에서		
-자녀가 음악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됨	치료를 선택		

2) ‘긍정적 요인’ 범주

(3) 변화를 촉진하는 음악의 힘

연구 대상자들은 음악이 자녀에게 표현 할 수 있는 기회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공감 및 수용의 도구로 사용됨을 느꼈다. 또한 음악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매체이며 정확한 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해준다고 생각하였다.

< 주제5: 표현의 도구로서 음악 >

-음악활동을 통해 자녀의 생각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고 느낌

미술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힘들잖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참아 내면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큰데, 음악은 어떤 결과물이 남지는 않지만 하면서 금방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로 즉각적

인 피드백이 제공 되는 거죠. (연구 대상자 B)

-자녀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음악이 매개체가 됨

음악을 하면서 자기 표현력을 드러내야 하니깐 그 전보다는 좀 더 표현하는 게 다양해졌다고 해야 하나? 아이가 음악치료를 만나서 아이의 성격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고, 표현이 적극적으로 된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D)

음악은 재미있고 표현할 수 없는 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지를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연구 대상자 F)

#### < 주제6: 공감과 수용으로서 음악 >

-음악 안에서는 오답이 없고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생각하게 됨

아이가 틀리는 것에 되게 예민해요. 그런데 음악은 틀려도 뭐, 괜찮잖아요. 뭐, 노래 가사 틀리는 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죠. (연구 대상자 E)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음악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음

미술 같은 건 솔직히 피카소의 그림.. 이해하기 난해하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작가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면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음악은 솔직히 특별히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들었을 때 ‘좋다’, ‘나쁘다’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 흐름은 듣다보면 알게 되잖아

요. 그래서 음악이 접하기에 가장 쉬운 예술인 것 같더라고요. (연구 대상자 D)

-음악이 자녀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느낌

우리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치료실에 들어가면 절대로 할 아이가 아니에요. 기 싸움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음악치료 시간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분위기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자기 땀에는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연구 대상자 E)

#### (4)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음악

연구 대상자들은 노래를 통해서 자녀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음악의 장점을 인지하였고, 자녀와 대화를 할 때 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자녀의 학교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통해 타인과 상호작용을 형성하였음을 연구 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다.

#### < 주제7: 상호작용의 장을 만들 >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줌

이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잘 돼요. 노래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가 노래를 부를 때 저도 노래를 부르니깐 ‘엄마도 이 노래 알아?’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깐 아이한테는 어찌 되었든 이런 점이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고.. 아이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더라고요. 꼭 몸으로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래만 가지고도... (연구 대상자 B)

관계 면에서도 아이가 알고 있는 노래를 제가 알고 있을 때,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중략) 굳이 도구가 없어도 목소리만 있으면 같이 놀 수 있으니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딜 나가도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 훨씬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죠. 얘기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C)

#### -음악이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일반 아동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줌

그런데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수업시간에 노래도 할 줄 안다고... 지금은 완전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노래를 따라 부르니깐 그게 놀라웠었나 봐요. 학교에서 조회 할 때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그 노래를 못 불렀으면 친구들이 ‘아, 재는 저런 것도 못 해.’ 라고 할 텐데 아이가 그 노래를 부르니깐 다시 보는 거죠. 그런 것에서 기쁨이 오죠. (연구 대상자 A)

#### (5) 음악이 자녀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

연구 대상자들은 음악치료를 경험한 자녀에게 각 영역별로 많은 향상과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료에 임하는 태도 또한 변화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음악활동을 하면서 신체의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였고, 노래를 기억하여 부르는 것을 통해 인지 영역에서의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기존의 자녀에게서 볼 수 없었던 악기 연주하는 모습,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은 연구 대상으로 하여금 음악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킴을 느끼게 하였다.

#### < 주제8: 신체 발달 >

-노래를 부름으로서 자녀의 폐활량이 향상되었음을 깨달음

노래를 부르면 폐활량이 좋아지니깐.. 제가 느꼈던 부분은 운동할 때에도 덜 힘들어 했어요. 이전에는 아주 낮은 산이나 이런 것을 오를 때도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노래를 부를 때에도 폐활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연습이 돼서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연구 대상자 B)

-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손가락의 개별적 움직임이 향상됨

처음에는 아이가 근육 분리가 되지 않다보니깐.. 피아노를 칠 때 운지법을 무조건 주먹을 사용해 두들기듯, 손바닥으로 두들기듯 했는데.. 단순히 병원에서 재활치료만 하다가 음악치료를 하니깐 피아노 운지법을 배우고 악기 연주를 하면서 손가락 분리가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잘 된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D)

### < 주제9: 인지 향상 >

-노래가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됨

여기서 배우는 노래들이 다 기존에 나오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을 외워서 아빠한테 알려줘요. 내가 노래 해 줄까? 이러면서 부르는 게 있어요. 예전에 배웠던 노래를 안 까먹고 아직도 아빠한테 들려줘요. (연구 대상자 E)

음악회를 했을 때 선생님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집에서도 계속해서 노래 불렀어요. 가사는 잘 모르지만 음을 흥얼거렸어요. 선생님이 손동작 하는 것도 따라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가끔 그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기억하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F)

-음악치료 시간에 배운 노래의 음을 기억하여 노래하는 자녀의 모습이 신기함

매일 차에서 듣는 노래를 틀어주면 음도 잘 맞춰서 노래해요. 그게 신기해요. 음을 맞춰서 한다는 게.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음을 맞춰서 한다는 게 신기해요. 너무 잘 맞춰요. 음하고 박자를요. (연구 대상자 F)

-작사와 작곡을 하는 자녀의 모습이 놀라움

집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이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자신이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가사를 붙이더라고요. 이건 음악치료를 받은 효과죠. (연구 대상자 A)

자기가 작사 작곡을 그럴듯하게, 음의 흐름도 그렇고 가사 내용도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보통 애들이 단순히 배운 것만 그냥 노래로 부르다거나 하는데, 아이는 자기가 작사 작곡을 그럴듯하게 해요. 지금도 음악하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작사 작곡을 근 1년 가까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들려주고, 아빠한테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럴게요. (연구 대상자 D)

## < 주제10: 의사소통 향상 >

-노래를 부르면서 의사소통 영역이 눈에 띄게 향상 되는 것을 느낌

저는 뭐.. 노래나 조금 배우고, 춤추고.. 여자 애들은 이렇게 많이들 놀잖아요.

저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말도 노래를 통해서 많이 늘었어요. 기대 이상이었어요. (연구 대상자 C)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게 됨

지금도 우리 아이는 긴 문장을 이야기 할 때, 긴 문장에 음을 넣어서 이야기 하면 그것은 금방 알아들어요. (연구 대상자 F)

-발음 교정에 큰 효과를 보게 됨

음악치료를 하면서 확실히 발음도 많이 정확해지고, 호흡이 길어지니깐..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책을 읽으면서 안 힘들어 해요. (중략) 그러니깐 마이크를 통해서 노래를 해 내 소리가 어떻다는 것을 본인이 판단을 하고 그것을 느끼고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예쁘구나, 별로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B)

### < 주제11: 사회성 향상 >

-무대 위에서 다른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자녀의 모습이 믿겨지지 않음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기대를 안 했어요. 가만히 서있다 내려오겠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몇 개월 했다고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중략) 앞에 나가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선생님께 두 세 번은 물어봤을 거예요. '우리 애가 정말로 노래를 해요?' 라고요. 여기에 와서 노래를 했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예요. (연구 대상자 E)

-자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줄 알게 됨

자기 차례, 자기 순서, 지켜야 될 것, 여기서는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노래를 하면서 하니깐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이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는 게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순서를 기다리는 게 즐거운 기다림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힘든 게 있어도 잘 버텨요. (연구 대상자 B)

-음악치료에서 다뤄본 악기를 일상생활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쉽게 연주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피아노가 있으면 자신이 하려고 하고 앉아서 두드리려고 하고.. 그런 게 있죠. 기타 같은 것도 있으면 치는 시늉을 하고.. (연구 대상자 A)

음악을 하다 보니깐 빠르게 음의 높낮이나 박자 같은 것을 익혀가지고 이젠 노래 같은 걸 곧잘 하고.. 피아노 칠 때에도 단순하게 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보드를 칠 때도 조금 비슷하게 흥내를 내려고 해요. (연구 대상자 D)

## < 주제12: 정서적 안정 >

-자녀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느낌

어쩔 때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노래를 하는 것에 있어서.. 피아노, 악기를 다루는 것이 자기 자존감에 도움이 크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악기를 한 번 다뤄보고 쳐보는 거랑 그냥 수업시간에 해보는 거랑 천지차이잖아요. 자존감

그런 것에 악기 연주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A)

솔직히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자신감을 가져라, 크게 해라’ 해도 그게 와 닿지 않는데.. (중략) 예술이긴 하지만 소리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음악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연구 대상자 D)

#### -자녀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밝아졌음을 발견

아무래도 음악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중략) 음악이 단순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심리를 어루만져 주고 치유할 수 있고.. 아이한테도 음악을 함으로써 성격이 밝아지더라고요. (연구 대상자 D)

음악치료에 대한 단점을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일단 치료를 받고 나서 밝아요. 즐거워해요. (연구 대상자 E)

음악치료를 하고 난 직후 그 날. 오늘 같은 날이죠. 그 날은 더 밝죠. 애가 더 신나하죠. 집에 가는 길에서도 그렇고. 확실히 기분이 좋아요. 인지와 언어치료를 하고 집에 가는 날하고 비교해보면 노래를 하고 간 후의 기분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연구 대상자 F)

#### -자녀에게서 충동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낌

아이가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많이 참지요. 허락을 받으려고 하고. 엄마 것도 만지고 싶은데도 물어 봐요. (연구 대상자 E)

< 주제13: 자녀가 치료에 임하는 태도 변화 >

-치료실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됨

치료를 다녀 보면 치료실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치료실을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하나 군데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악은 그게 없었어요. (연구 대상자 A)

치료실 다닐 때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지금도 제가 자리에 앉혀줘야 앉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월하게... 다른 데는 아직도 제가 다 해줘야 들어가요. (연구 대상자 E)

-자녀가 다른 치료보다 음악치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음

비가 오거나 날이 진짜 너무 안 좋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웬만해서는 오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음악치료실에 안 간다고 하는 일도 절대 없어요.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하면 아이한테 '오늘 음악 있으니깐 힘내서 해.' 라고 말을 하고.. 그럼 아이가 힘을 내요. (연구 대상자 D)

<표 5> '긍정적 요인' 의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음악활동을 통해 자녀의 생각이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고 느낌	표현의	변화를	긍정적 요인
-자녀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음악이 매개체가 됨	도구로서 음악	촉진하는 음악의 힘	

<p>-음악 안에서는 오답이 없고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생각하게 됨</p> <p>-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음악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음</p> <p>-음악이 자녀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느낌</p>	<p>공감과 수용으로서 음악</p>	
<p>-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줌</p> <p>-음악이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일반 아동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줌</p>	<p>상호작용의 장을 만들</p>	<p>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음악</p>
<p>-노래를 부름으로서 자녀의 폐활량이 향상되었음을 깨달음</p> <p>-피아노를 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손가락의 개별적 움직임이 향상됨</p>	<p>신체 발달</p>	
<p>-노래가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됨</p> <p>-음악치료 시간에 배운 노래의 음을 기억하여 노래하는 자녀의 모습이 신기함</p> <p>-작사와 작곡을 하는 자녀의 모습이 놀라움</p>	<p>인지 향상</p>	<p>긍정적 요인</p>
<p>-노래를 부르면서 의사소통 영역이 눈에 띄게 향상 되는 것을 느낌</p> <p>-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음악을 사용하게 됨</p> <p>-발음 교정에 큰 효과를 보게 됨</p>	<p>의사소통 향상</p>	<p>음악이 자녀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p>
<p>-무대 위에서 다른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자녀의 모습이 믿겨지지 않음</p> <p>-자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릴 줄 알게 됨</p> <p>-음악치료에서 다뤄본 악기를 일상생활에서도 머뭇거리림 없이 쉽게 연주할 수 있게 됨</p>	<p>사회성 향상</p>	

-자녀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느낌 -자녀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밝아졌음을 발견 -자녀에게서 충동행동을 조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느낌	정서적 안정	음악이 자녀에게 가져온	긍정적 요인
-치료실에 자발적으로 들어가 참여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됨 -자녀가 다른 치료보다 음악치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녀가 치료에 임하는 태도 변화	긍정적인 변화	

### 3) ‘인식전환’ 범주

#### (6) 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

연구 대상자들은 자녀를 변화시키는 음악에 대한 치료적 효과를 느끼고 기존에 형성되었던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또한 자녀의 삶에 있어 음악이 활력소가 되어줄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음악의 치료적인 힘을 신뢰하였다. 이는 다른 부모들에게도 음악치료의 효과를 이야기하게 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으며, 환경적 요인이 불편하더라도 음악치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다른 치료와 함께 병행하였을 때 서로 상호적인 치료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음악치료를 받는 회기수를 늘려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해주고 싶어 했다.

#### < 주제14: 음악의 치료적 효과를 자각 >

-자녀의 변화된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음악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치료가 아이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나아진 모습을 보면 ‘어? 처음에 내 기대와는 다르네? 아이가 상당히 좋아하네? 치료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만족스러움과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연구 대상자 D)

-음악은 자녀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게 됨

아이에게 있어 음악은 완전 생활의 활력소예요. 그게 없었으면 진짜..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중략) 아이만 놓고 보서는 해소가 높아요. 저는 아이가 어쩔 틈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되었어요. 활력소가 되죠. (연구 대상자 B)

-말로 설명할 수 없으나 음악이 가진 치유적인 효과를 느낌

저는 음악치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치유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본인의 만족, 우리 아이가 만족하는 거예요. (연구 대상자 E)

-자녀에게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게 됨

스트레스 해소.. 그것도 있죠. 우리 애들도 사실은 부모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거잖아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애기 때부터. 그러니깐 스트레스를 발산할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연구 대상자 A)

-음악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한다는 것을 느낌

음악의 특별한 점은요, 이 아이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마음을.. 마음을 움직인다고 해야 하나? 절대 먼저 치료실을 가자고 하는 애가 아닌데 음악은.. 음악치료가 있는 날을 기다려요. (연구 대상자 E)

-음악이 자녀의 감정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됨

그런데 확실히 음악 같은 것을 하면서 감정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성질내고 자기 멋대로 하려던 게 조금씩 자기 감정조절도 되고.. 물론 말기 알아듣는 것도 있어서, 이해해서 감정조절도 되지만 음악을 해서 감정조절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구 대상자 D)

#### < 주제15: 음악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형성 >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느낌

음악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도 놀이치료를 그만 두면, 음악치료를 개인적으로.. 개별로 한 시간 정도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연구 대상자 E)

음악치료를 더 하고 싶어요. 개별이든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든 참여를 더 하고는 싶죠. 또 선생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하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아이가 좋아하니깐. (연구 대상자 F)

-타 치료와 병행했을 때 치료적 효과를 빠르게 가져온다고 느낌

예를 들면, 처음에 음악치료 시간에도 한글하고 관련된 것들도 하시잖아요. 음감이나 단어 그런 것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여

러 가지 치료를 같이 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 대상자 A)

-치료의 효과를 느끼고 다른 부모들에게 음악치료를 권유하게 됨

소개도 많이 시켜줬죠. 언어 면에서 좋다고.. 자녀의 변화가 없었으면 다른 부모들에게도 소개시켜주지 못하죠. 그리고 아무리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변화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오죠. 변화가 있으니깐 말이 나오는 거죠. (연구 대상자 A)

제가 어딜 가면 음악치료를 하나요? 라고 물어요. 아이의 성향도 있기는 하지만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음악치료를 하면서 말이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주위에도 음악치료를 좀 많이 권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연구 대상자 C)

-일반 음악활동과 다른 음악치료만이 가진 장점을 느낌

피아노 학원보다는 이곳이 악기의 종류도 많고 자극도 다양하게 받고 선생님들 하고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음악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음악학원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연구 대상자 D)

-환경적인 요인이 불편하더라도 음악치료를 포기 할 수 없음

음악치료실이 병원에 있다가 여기로 옮기고.. 주차시설이 나쁜긴 하지만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1순위는 아이가 좋아하고 2순위는 제가 마음에 들고 하니깐. (연구 대상자 D)

-음악은 자녀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됨

저는 음악이 오감이라고 생각해요. 몸도 움직이잖아요. 음악에 맞게. 그러니깐 체육활동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간에도 시각차이가 있죠. 급급하니깐. 그런데 멀리 보면 저는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 대상자 A)

### (7) 음악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바뀜

연구 대상자들은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하면서 음악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으며, 타 치료와 비교하였을 때 음악치료의 비중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 < 주제16: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깨달음 >

-자녀로 인해 노래 부르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것을 즐기게 됨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도 노래를 불러주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노래 부르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어차피 가족이고. 저도 즐겁게 노래 부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D)

-자녀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

저도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하다보니깐 아이가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맞추면서.. 그 시간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뭐, 그래봤자 악기 연주 시간도 잠깐이지만 해소도 하게 돼요. (연구 대상자 D)

< 주제17: 음악치료의 중요성을 느낌 >

-타 치료에 상관없이 자녀가 원하는 것(음악치료)을 해주고 싶어짐

그냥 이제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치료를 더 늘려주고 싶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반응을 더 많이 하니깐..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 돼요. 좋아하는 걸로 인해서 더 끌어내는 거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연구 대상자 F)

-같은 치료 목적을 가졌을 때 타 치료보다 음악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자 함

언어치료에서 보는 문제점하고 음악치료에서 보는 문제점이 거의 동일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같은 특수 분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인 주입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노래는 조금 방향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언어는 끊고 음악치료만 하고 있는 거죠. (연구 대상자 A)

<표 6> ‘인식전환’의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자녀의 변화된 모습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음악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	음악의 치료적 효과를 자각	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	인식 전환
-음악은 자녀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게 됨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음악이 가진 치유적인 효과를 느낌			
-자녀에게 음악은 스트레스 해소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생각하게 됨			

-음악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한다는 것을 느낌		
-음악이 자녀의 감정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게 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고 싶다고 느낌		
-타 치료와 병행했을 때 치료적 효과를 빠르게 가져온다고 느낌		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
-치료의 효과를 느끼고 다른 부모들에게 음악치료를 권유하게 됨	음악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형성	
-일반 음악활동과 다른 음악치료만이 가진 장점을 느낌		
-환경적인 요인이 불편하더라도 음악치료를 포기 할 수 없음		인식 전환
-음악은 자녀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됨		
-자녀로 인해 노래 부르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것을 즐기게 됨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깨달음	
-자녀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		음악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바뀜
-타 치료에 상관없이 자녀가 원하는 것(음악치료)을 해주고 싶어짐	음악치료의 중요성을 느낌	
-같은 치료 목적을 가졌을 때 타 치료보다 음악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자 함		

#### 4) '관계변화' 범주

##### (8) 가족관계의 변화

연구 대상자들은 자녀의 음악치료 경험이 자녀와 부모 간의 상호작용 형성

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형성은 실질적으로 가족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고 자신 역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는 등 여러 노력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녀 양육태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 형성은 주로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형성은 자녀의 음악치료경험 후,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 < 주제18: 엄마로서 자녀 양육태도 변화 >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됨

우리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깐 패턴이 천천히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냥, 아이들이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래요. 재미있대요. 꼭 가야 한 대요. 그래도 피곤하잖아? 이러면 ‘하나도 안 피곤해.’ 라고 말해요. (연구 대상자 B)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됨

같이 노래를 따라 불러주고 아이가 관심 갖는 노래라면 저도 좀 관심 갖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배워보려고 하죠. 아이가 아니었으면 그런 노래에 관심도 없었을 텐데.... (연구 대상자 C)

-자녀와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 자신도 노력하게 됨

저도 좀 더 노래를 유심히 들어요. 더 듣게 돼요. 가사도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가사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들어요. (연구 대상자 B)

### < 주제19: 음악을 통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 형성 >

-자녀가 먼저 엄마에게 같이 음악활동을 해볼 것을 제안함

단순히 소꿉놀이, 역할극 이런 것을 하는 것만 있었다면 이제는 악기를 가지고 자기를 따라서 연주를 해보래요. 엄마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고.. ‘엄마도 해 봐. 나 이렇게 두들길 테니까 엄마도 두들겨 봐.’ 아니면 ‘엄마 내가 이렇게 연주할 테니까 엄마도 이거에 맞춰서 다른 악기를 해 봐.’ 이렇게 합주를 하자고 해요. (연구 대상자 D)

-자녀가 표현언어를 사용하여 가족에게 대화를 시도함

아빠가 오면 노래의 끝에다가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와 같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음악치료를 하면서 거의 일상화가 되었어요. (연구 대상자 A)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남

아이의 악기 놀이에 같이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아빠에게도 악기 연주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아빠는 몇 번 하고 도망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아빠가 그렇게 몇 번 연주해 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더라고요. 가족 전체를 음악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연구 대상자 D)

-집 안에서 노래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즐거워 함

집 안에서 가끔 노래하는 것들로 인해 웃기도 하죠. 할아버지한테도 아빠한테도 뭔가를 탈 때 노래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웃음을 주는 거죠. (연구 대상자 A)

### < 주제20: 음악을 통해 자녀의 새로운 삶을 희망 >

-음악에 반응이 좋은 자녀의 모습을 보고 꿈(장래희망)을 갖게 됨

아이의 음악적 재능이 자라만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재미있어 하면 나중에 훌륭한 음악가로서의 그런 사명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이에게 음악적인 자질이 보이고 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희망해보고 있어요. (연구 대상자 D)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함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가 밝아지고 아이가 못 하던 것도 하게 되니깐 저도 약간.. 삶의 기대치라고 해야 하나? 아이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아이가 즐거워하니깐 저도 우울하기만 했던 예전과는.. 그 때보다는 낫죠. (연구 대상자 C)

### <표 7> ‘관계변화’ 의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구성된 의미	주제	주제모음	범주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됨	엄마로서 자녀 양육태도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관계 변화

---

-자녀가 좋아하는 노래에 관심을 갖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됨  
-자녀와 함께 노래 부르기 위해 자신도 노력  
하게 됨

---

-자녀가 먼저 엄마에게 같이 음악활동을 해볼  
것을 제안함  
-자녀가 표현언어를 사용하여 가족에게 대화  
를 시도함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남  
-집 안에서 노래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즐거워 함

---

음악을 통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 형성  
가족관계의  
변화  
관계  
변화

-음악에 반응이 좋은 자녀의 모습을 보고 꿈  
(장래희망)을 갖게 됨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함

---

음악을 통해  
자녀의 새로운  
삶을 희망

## 2. 본질적 구조

본질적 구조는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변화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압축한 것이다. 연구 대상자가 인식하는 관계변화의 핵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으며, 도출된 4개의 범주는 ‘기본 인식’, ‘긍정적 요인’, ‘인식전환’, ‘관계변화’ 로 나타났다.

먼저 첫 번째 범주인 ‘기본 인식’의 주제모음은 ‘음악치료에 대한 기본 인식’과 ‘음악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음악을 치료로 사용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를 위해 치료를 선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범주인 ‘긍정적 요인’의 주제모음은 ‘변화를 촉진하는 음악의 힘’,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음악’, ‘음악이 자녀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녀의 음악치료 경험 후, 음악이 자녀의 모든 영역에 걸쳐 향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은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적용되었다.

세 번째 범주인 ‘인식전환’의 주제모음은 ‘음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 ‘음악을 받아들이는 나의 모습이 바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통해 부모는 음악의 치료적 효과를 자각하게 되었으며, 음악치료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도구로 음악을 활용하고,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범주 ‘관계변화’의 주제모음은 ‘가족관계의 변화’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눈

높이와 맞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에는 없었던 자녀의 변화  
된 모습은 부모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치를 상승하게 만들었다.  
또한 음악을 통해 자녀와 부모 간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형성됨으로써 안정  
적인 관계형성을 맺을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음악치료전문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을 살피고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을 통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분석 과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로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의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표집 하였으며,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에 대한 인식의 형성 및 상호작용, 자녀와 부모에게 나타난 관계변화의 내용에 대해 심층면담 하였다. 미리 준비된 반구조적 질문지에 따라 진행된 심층면담은 모두 녹음기로 녹음된 후, 연구자에 의해 필사되었으며 이러한 녹취자료를 바탕으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59개의 '구성된 의미'와 20개의 '주제', 8개의 '주제모음' 그리고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범주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은 부모의 음악치료 인식 형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연구 대상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음악치료에 대한 기본인식은 치료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이 없었으며, 음악을 치료로 사용한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음악치료는 타 치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마지막 순서였다. 이렇듯 연구 대상자들의 인식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나, 긍정적으로 변화된 자녀의 모습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느끼고 다른 부모들에게도 음악

치료를 권유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자녀가 받고 있는 여러 치료 중에서도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더 참여하고 싶어졌으며 음악이 자녀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음악치료에 대한 기본 인식과 비교했을 때 치료의 인식 수준과 그 내용은 자녀의 음악치료경험 후, 음악의 치료적 효과를 자각할 뿐 아니라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깨닫고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둘째,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내용은 음악을 통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족이 함께 악기연주 및 노래를 부름으로써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자기의사를 표현하게 되면서부터 대화가 가능해졌다. 이와 같이 음악을 통해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셋째, 음악치료를 경험한 자녀와 부모에게 나타난 관계변화로 엄마로서 자녀 양육태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자녀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또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은 엄마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음악을 통해 변화된 자녀의 모습은 부모에게 자녀의 삶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켰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새로운 삶을 희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에서 제기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의 내용,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게 나타난 관계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에 관하여 실행된 질적 연구의 수가 전무한 상황에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 과정과 그 경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양적 변화에만 주목하던 음악치료 연구들과는

다르게 장애아동의 음악치료 경험이 주 양육 대상자인 어머니에게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자녀와 부모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내용과 관계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양적 연구과정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연구 대상자들의 변화를 질적 연구로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이 부모에게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알 수 있었으며, 자녀와 부모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내용과 관계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향후 음악치료 분야에서 다뤄질 장애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변화를 위한 질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 2. 제언

본 연구에서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그 부모의 관계변화를 논의함에 있어 가지는 제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는 자녀의 연령 및 진단명, 치료를 시작한 기간, 음악에 대한 기본 인식 등이 상이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선호, 활용방식, 경험에 대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음악치료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인식의 방향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는 연구자가 음악치료 인턴을 실시한 기관에서만 선정되었으므로 다른 센터나 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음악치료경험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모든 장애아동 어머니들의 경험이라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를 표집하고 이론적으로의 적합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자는 미혼으로 자녀의 양육경험과 해당 지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연구 대상자를 심층면담 하였다. 이는 면담 내용의 질과 그 깊이를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는지에 대한 점에서 제한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 양육 대상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이 진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에서 바라본 아버지의 입장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연구의 타당성과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의 관점에서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선경(2002).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태도,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 지원이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14, 17-35.
- 강윤영, 한경근(2007). 발달지체유아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9(4), 125-150.
- 교육부(2013). 특수교육통계. 2015년 2월 11일 아카이브 검색 인용. <http://www.korea.kr/>
- 김기령(2004). 집단미술치료가 장애아동부모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김기은, 이양희(2007). 장애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과 자녀양육 참여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10, 129-146.
- 김수지(201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위한 음악의 치료적 사용. **한국예술연구**, 6, 99-116.
- 김애경(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 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인옥, 이원령(2011).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7(1), 101-120.
- 김정란(2006). 초등학교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미(2004). 어머니의 반응성 상호작용 특성이 발달장애 아동의 포괄적 발달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3), 25-41.
- 김지연(2003). 상호작용 음악활동이 다운증후군 유아의 언어 학습 능력

- 향상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천국, 김진희(2012). 장애아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279-296.
- 김효선, 선우현(2014). 가족놀이음악치료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증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5(1), 65.
- 류현정, 이승희(2007). 소아정신과 치료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및 인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3(1), 29-55.
- 문지영(2010). 정신과 전문인들의 음악치료 인식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2), 33-60.
- 박소연(2004). 동요활동이 자폐성 아동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6(2), 38-48.
- 박소연, 황은영, 이은선(2010). 음악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해도 및 기대도 관련 조사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2(1), 66-81.
- 박지연(2004). **가족지원의 이론과 실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 박진성, 신현정, 박애순(2008). 어머니의 사고양식,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양육 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1-18.
- 박혜영, 박부진(2013).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치료연구**, 11, 69-83.
- 박혜영(2014). **기악즉흥연주를 적용한 부모-자녀 관계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정서·행동장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백경실(2012). **음악심리치료가 모-자 의사소통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대학원.
- 선우현(2007). 가족놀이치료가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

- 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3(4), 197-216.
- 송승민, 도현심, 김민정, 김수지, 윤기봉, 김정은(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 참가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4), 133-158.
- 안정선, 오승진(2012).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8(1), 21-39.
- 윤견수(2013). 경험의 의미와 질적 연구의 연구 과정: 근거이론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 17(2), 163-200.
- 윤선아, 나수현(2005). 전반적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질적연구. **특수교육**, 4(1), 77-104.
- 윤정하(2011). **장애아동 음악치료 실태와 특수교사의 인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혜신(2000). **음악치료가 반응성 애착장애아의 어머니-아동 관계개선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명, 박재국, 김혜리, 서보순(2010).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실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3(4), 407-428.
- 이수진(2002). **집단음악활동이 초등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승현(2000). **음악치료가 자폐아동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한우(2002). 발달장애아동 가족 지원 특성과 양육 스트레스 연구. **정서·학습장애연구**, 18(3), 327-349.
- 장혜원(2007). 긍정적 정서표현을 유도하는 음악활동이 장애유아의 어린이집 자유 놀이 시간에서 또래를 향한 정서표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

- 장애연구, 23(4), 151-172.
- 정남주(2010). 미술치료 기법을 적용한 부모-자녀 놀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정대영, 최정아(2010). 장애아동 부모와 일반아동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 비교. 정서·행동장애연구, 26(3), 319-343.
- 정민정, 서주은(2010). 장애아동 특성에 따른 재활치료 서비스 현황 및 욕구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4), 157-173.
- 정예은(2007). 모-자가 함께하는 songwriting 음악활동이 부모의 수용 및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조용태(2001). 특수아상담. 서울: 양서원.
- 진소영(2009). 음악 속의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장애아동 집단의 음악치료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86-102.
- 최신형, 주세진(2012). 음악치료가 발달장애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장애연구, 12(1), 119-137.
- 하승희(2013). 자녀의 음악치료 경험을 통한 부모의 인식 형성에 관한 질적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9(4), 309-329.
- 한현정, 김혜영(2003).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의 실태 및 요구 조사. 한국가족복지학, 8(2), 137-162.
- 홍화진, 정대영(2012).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정서·행동장애연구, 28(4), 29-62.
- 황은영, 김영신(2009). 놀이적 음악감상이 유아들의 고전음악 선호, 주제 선율 인식 및 음악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2), 100-113.

- Alvin, J. (1975). *Music therapy*. London: John Clare Books.
- Austin, D. S. (2012). *성악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자기에 대한 노래* (*The theory and practice of vocal psychotherapy: songs of the self*) (한국성악심리치료사협회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8 출판)
- Bailey, D. B., Raspa, M., & Fox, L. C. (2012). What is the future of family outcomes and family-centered service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31*(4), 216-223.
- Wheeler, B. L. (Ed.). (2004). *음악치료 연구*(*Music therapy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정현주, 정영주, 이인용, 송인령, 윤정림, 정희진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5 출판)
- Bruscia, K. (1998). *Defining music therapy* (2<sup>nd</sup> Ed.).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onald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7 출판)
- Gaston, E. T. (1968). *Music in therapy*. New York: Macmillan.
- Kauffman, J. M., & Landrum, T. J. (2011). *정서행동장애*(*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김진호, 노진아, 박지연, 방명애, 황복선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8 출판)
- McDonnell, L. (1984). Music therapy with trauma patients and their

- families on a pediatric service. *Music Therapy*, 4(1), 55-63.
- Merriam, A. P. (1964). *The anthropology of music*.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Nolan, P. (1989). Music as a transitional object in the treatment of bulimia. *Music therapy perspectives*, 6, 49-51.
- Nordoff, P., & Robbins, C. (1971). *Therapy in music for handicapped children*. London: Victor Gollancz. Ltd.
- Orff, G. (1980). *The orff music therapy*. New York: Schott Music Corporation.
- Radocy, R. E., & Boyle, J. D. (1997). *Psychological foundations musical behavior*.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 Thaut, M. H. (1989). Music therapy affect modulation and therapeutic change: Toward and integrative model. *Music Therapy Perspectives*, 7, 55-62.
- Turnbull, A. P., & Turnbull, H. R. (2001).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NJ: Merrill Prentice Hall.

## **ABSTRACT**

### **A Phenomenological Research about Relationship Change between Disabled Children who Experienced Music Therapy and their Parents: Focuses on Mothers**

Jung, Da Jung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relationship change between disabled children who experienced music therapy and their parents in detail and depth. Participants were selected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who experienced music therapy. This study used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o approach the participants' subjective experience. The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and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rough selected significant statements, data analysis of 59 formulating meaning, 20 themes, 8 theme clusters, and the 4

categories were derived. Each category was derived 'Basic recognition' , 'Positive factors' , 'Change of recognition' , 'Relationship change'. The ensuing results of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ere the mother's rearing attitudes in accepting children's opinions, formed interactions between the family members in sing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the parents increased hope in their children's future life.

This study helps the researcher to understand the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in the mother's view of main caregivers and the relationship change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rough music therapy. In the field of music therapy, this study will be presented as a basis for future qualitative research in relationship change between parents and disabled children.

<부록>

## 연구 참여 동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전문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며 추후 내용 분석을 통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진행 될 것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의 참여자로 요청 받으셨으며 강제성 없이 귀하의 판단에 의해 연구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약 1시간 내·외의 면담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자녀의 음악치료경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기로 녹음될 것입니다. 녹음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모든 자료는 폐기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자 및 연구가 진행되어진 음악치료전문기관 소속 음악치료사 외에는 이 연구와 관련된 인터뷰내용을 듣거나 기록된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오직 연구자만 알 수 있도록 기호화하여 표기되며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인권과 안전을 약속드리며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음악치료를 경험한 장애아동과 부모의 관계변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추후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장애아동과 부모들에게 음악치료를 알리고 이와 관련된 음악치료 분야의 전문인, 전공생들에게 훌륭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합니다.

2015년        월        일

참여자 : \_\_\_\_\_(인)

연구자 : \_\_\_\_\_(인)